

01월 09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01월 09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혼조 [다우: 8,742.46pt (-0.31%)]	뉴욕증시가 8일(현지시간)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렸음. 소매업종의 부진한 실적전망으로 장중 약세를 지속했지만, 오후들어 차기 정부의 경기회복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뉴욕증시는 낙폭을 줄이며 혼조세로 마감했음.
소매업종 증시 발목.. 월마트 이익추정 낮추자 실망매물	세계 최대 소매점 체인인 월마트(Wal-Mart)를 비롯해 메이시스(Macy's), 갭(Gap), 리미티드브랜즈(Limited Brands) 등 소매업체들이 작년 4분기 이익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며, 뉴욕증시에 큰 부담을 줌. 소매업체들에게는 추수감사절 이후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2개월간의 홀리데이 쇼핑시즌이 최대 대목이지만 작년의 경우엔 공격적인 할인판매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리세션 여파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데는 실패했음.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기대치 이상'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월가의 예상치보다 크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3일 마감기준)는 전주대비 2만4,000건(계절조정) 줄어든 46만 7,000건을 기록했음. 이는 전월 49만 1,000건(수정치)보다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월가의 전망치도 크게 하회하는 수치임. 브리핑닷컴이 집계한 월가의 컨센서스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55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었음.
오바마 대통령 경기부양 의지 거듭 천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조지 메이슨 대학 연설을 통해 "의회가 전례없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경기후퇴(recession)가 향후 수 년간 이어질 수 있다"며 대규모 재정지출을 촉구했음. 오바마 또 경기부양책으로 95%의 근로자 가구에 가구당 1,000달러의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실업자에 대한 지원과 실직자의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음.
국제유가, 수요부진 우려로 2% 하락 [WTI: \$41.7 (-\$0.93)]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2% 하락했음. 석유 최대 소비국인 미국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한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스 분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음.
日 명품렌탈 서비스 "고맙다, 불황"	세계 경기침체로 소비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명품렌탈족(族)'이 급증. 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간 명품 렌탈 업체는 서비스 이용자가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특수'를 누리고 있음.

제목	주요 내용
일본 노사 '일자리 나누기' 본격 논의	일본 노사 대표가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 고용 분담 차원에서 워크셰어링(work sharing)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 근로자 한 사람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그만큼 고용을 늘리거나 현재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제도.
英 중앙은행, 기준금리 1.5%로 인하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8일 기준금리를 2%에서 0.5% 포인트 인하해 315년 만에 최저인 1.5%로 낮춤. 영국의 기준금리가 2% 밑으로 내려가기는 1694년 BOE가 설립된 이래 처음.
中國 은행들 심상찮다	세계 금융위기가 중국 은행권으로 전염될 조짐.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UBS에 이어 아시아 최고 부호인 홍콩의 리카싱 청쿵실업 회장이 연달아 중국 은행권에 투자한 지분을 매각. 또 지난 7일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S&P는 중국 은행권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신중한 긍정(Cautiously Posi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하향 조정.
7,000억원 미회수 GM 대우, 유동성 위기 오나	GM대우차가 모기업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위기에 따른 판매 부진에다 회사 운영자금까지 압박받는 등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국내 완성차 5사 가운데 가장 먼저 공장가동 중단에 들어간 GM대우차의 가동중단 사태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생산물량의 90% 이상을 GM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수출하는 GM대우차가 모기업인 GM의 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차량대금을 못받게 되면서 공장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음.
지난해 글로벌 기업자금 조달 33% 급감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식과 채권 공모뿐만 아니라 신디케이트 론 등을 통한 전세계 기업자금 조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9일 니혼게이자신문은 딜로직을 인용, 지난해 전세계 기업자금 조달 규모는 7조9,500억달러로 전년대비 33%가 급감했다고 보도. 특히 서브프라임 손실로 타격이 큰 금융기관이 많은 미국과 유럽 지역내 신디케이트론의 경우 각각 53%나 44%가 감소했으며,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융위기 타격이 적어 전세계 신디케이트 론의 9%를 차지하면서 4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CD금리 사상 최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적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60bp 이상 급락하면서 3.2%대 중반으로 하락. 8일 증권업협회가 고시한 91일물 CD금리는 전일보다 67bp(1bp=0.01%p) 내린 3.25%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음. 시중은행의 CD 운용 관계자는 "풍부한 유동성과 내일 금통위 이벤트에 대한 기대로 CD금리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여기에 국내 경제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악재성 발언들도 한 몫했다"고 설명. 이어 "내일 금통위 기대감에 시장의 강세폭이 더욱 확대된다면 CD금리는 2%대 중반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